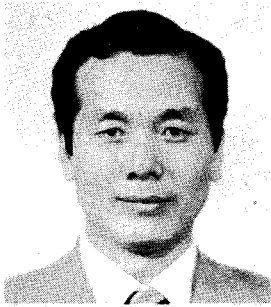


300件을 돌파하다 미디어 美國에 韓國出願



陳 今 燮

〈在美韓國辦理士·藥學博士〉

“It takes time(時間이 흘러야 한다)”란 말은 지금부터 정확히 6年半前인 1983年 3月 筆者가 美國에 이민의 뿌리를 내릴때 자주들던 말이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당시의 韓國出願이 겨우 83件이기에 어떡하나 할때였는데 우리 BSKB Law Firm의 나이먹은 辦理士가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에 미국에 한국특허출원이 300件을 그리고 상표출원이 130件을 돌파했으니 그 말이 적중한 것이다.

근간에 누적되는 美國의 貿易赤字를 메꾸기 위하여, 그리고 美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를 위시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는 件數가 급증하여 지난해에 무려 2,166件의 史上最大의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多數피고로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제는 美國에 수출할 때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附帶事件임을 立證해주고 남음이 있다.

或者是 美國人은 裁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학교에서 父母에게도 Your life를 위하여 Complaint(고소) 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나 거짓말은 아니다. 우리가 다 아는 데로 美國의 歷史는 구라과에서 Freedom(自由) 만을 하여 청교도들이 와서 開拓한 땅이

기에 이 美國人들을 내 個人의 自由를 방해하는 모든것에 대하여 Court에 가서 해결하려는 그리고 世界의 各양각색의 人種들이 모였기에 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Complaint animal (재판 동물)이라고 부르고 싶다. 勿論 이는 日本人을 Economic animal (경제동물)이라고 부르는 말에 대응시킨다면 말이다. 그러기에 法科大學(Law school)도 많고 Attorney (변호사)도 많고 또한 Patent Attorney(변리사)도 많다. 벌써 우리 特許事務所에도 30名이 넘는 Attorney가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美國의 市場에 우리 商品이 뚫고 들어가려면 우선 이 재판에 대처하는 祕訣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輸出商品은 대부분 知的所有權으로 侵害訴訟이 걸려오기에 첫째는 이 特許재판(Litigation)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Law Firm을 잘 선정하는 길ियो, 둘째는 수출하기 前에 이들 商品에 대하여 知的所有權으로 완벽하게 보호(Protection)해 놓는 방법이다.

그러기에 머리좋은 Economic animal인 日本은 일찌기 수출품에 대하여 특허·상표·저작권 등으로 보호를 해놓고 미국과의 貿易戰爭에서 늘 高地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1988年度 特許·商標의 美國에의 新規出願만 보더

라도 28,218件, 1,018件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아니되는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天萬多幸으로 우리의 美國에의 特許·商標出願 件數는 계속 伸張을 거듭하여 每年 特許는 50余件, 商標는 20余件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所望을 가져본다. 또한 지난 7月 한달동안 우리 BSKB의 夏季研修(BSKB Summer Training Program)에 40余名이 참석하는 大盛況을 이루었는데 한국에서 金星, 三星電子, 現代自動車, 럭키, 味元, 三星研究院, 三星電管 그리고 하영옥 辨理士等 11名이 참여하여 日本의 12名 다음으로 많은 數이기에 흐뭇한 감을 禁할 길이 없었다. 이들이 열심히 연수를 받고 갔기에 더 열심히 未來의 輸出品에 對하여 知的所有權으로 보호를 해 놓고 “有備無患”의 Catch phrase 下에서 더 많은 出願들을 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되돌아 보자.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길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면 世界市場인 美國市場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우리 상품들을 팔아야 하고, 國際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팔려면 知的所有權으로 보호해야하고, 知的所有權으로 보호하려면 新規出願을 美特許廳에 더 많이 해야하는 原理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結果論의 인지는 몰라도, 그러기에 筆者가 일찌기 美國

特許法律事務所에 Join을 하여 그 巨大한 업무에 微力하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 BSKB 事務所에서는 종종 筆者를 民間外交官(Private Diplomat) 이라고 하고, Semi-BSKB 職員이라고 꼬집는다. 아마도 한국의 特許分野에 너무 便들다보니 생겨난 榮光의 상처(?)이러니 하고 自慰한다.

1988年을 기하여 美國에 韓國出願 300件 들과에 즈음하여 統計的으로 考察해보고자 한다. 筆者가 지난 83年

4月 5日부터 이 BSKB 特許事務所에 勤務하면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韓國의 出願이 증가하기 始作했었다. 물론 처음에는 在美교포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국의 大企業의 出願이 무척 늘고있는 實情이다. 1984年에 75件이던 特許가 1988年에 304件으로 4年에 400%증가된 셈이니 件數는 보잘것 없지만 伸張率은 대단한 것이다. 商標 역시 1984年에 64件이던 것이 1988年에 131件으로 4年에 200% 증가된 셈이니 이 또한 伸張率이

1. 美國의 年度別 特許·商標出願件數

區分 年度	發明	意匠	植物	再出願	特許小計	商標小計	總件數
1984	109,010	8,446	248	281	117,985	80,930	198,915
1985	115,893	9,504	244	290	125,931	78,804	204,735
1986	120,988	9,792	291	332	131,403	83,451	214,854
1987	125,677	10,766	364	366	137,173	92,551	229,724
1988	136,253	11,114	377	439	148,183	101,915	250,098

2. 韓國과 몇個國과의 特許出願比較

國別 年度	中國	대만	홍콩	이태리	日本	韓國	北韓	全體外國人
1984	21	733	160	1,802	18,289	75	3	50,168
1985	26	917	151	1,799	21,699	168	2	55,993
1986	103	1,136	222	1,879	23,491	203	3	59,418
1987	82	1,297	215	2,054	25,022	256	13	62,344
1988	127	1,456	212	2,187	28,218	304	13	66,850

3. 韓國과 몇個國과의 商標出願比較

國別 年度	中國	대만	홍콩	이태리	日本	韓國	北韓	全體外國人
1984	82	179	155	791	958	64	17	8,680
1985	66	228	151	807	967	79	4	11,100
1986	61	238	159	1,051	1,071	100	6	12,574
1987	61	230	130	1,004	1,057	120	1	12,553
1988	63	265	158	1,350	1,018	131	1	13,871

큰 것이다.(表 2, 3 참조)

特許登録件數 역시全體件數는 적지만 1984년에 30件이던 것이 1988년에 115件으로 4년에 400% 증가된 셈이니 伸張率 또한 대단한 것이다. 商標登録件數 역시 1984년에 20件이던 것이 1988년에 60件으로 4년에 300% 伸張率을 보였다(表 5, 6참조)

이와같이 知的所有權의 出願과 權利設定이 많이 되어서 美國市場을 闖고(Penetration) 들어 가는데 中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 美國에 韓國出願분의 바람이 불기시작한 것은 必然的인 현상이며, 앞으로 계속 그리고 거세게 불것이며,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그러나 한 두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總件數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즉, 1988년에 304件的 特許出願을 했다 하더라도 총 미국특허 출원건수 148,183件的 0.20%에 불과하고, 상표 역시 총 131件으로 총 미국 상표 출원건수 101,915件的 0.13%에 불과한 現實이다. 特許登録에 있어서도 한국 등록 115件이 총 미국 특허 등록건수 83,594件的 0.14%이고, 상표등록에 있어서도 한국상표등록 60件이 총 미국 상표 등록건수 52,617件的 0.11%에 불과하다(表 1, 4 참조).

한편 1988年度에 있어서

全體外國人出願件數에 對해 比較를 해 보면 特許에 있어서는 총 66,850件에 對하여 0.45%, 商標에 있어서도 총 13,871件에 對하여 0.94%로 1% 미만이다.(表 5, 6참조)

잡간 日本의 1988年の 美國出願登録件數를 살펴보기로하면 特許出願 총 28,218件으로 全體外國人特許出願件數의 총 42.21%, 상표출원 총 1,018件으로 全體外國人商標出願件數의 7.34%으로 特許出願에 있어서 日本이 全體外國人出願의 약 50%를 點하고

있다는 事實은 日本의 뒤를 추적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1%미만과 비교도 안됨을 알때 Shocking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와 수출 등 경제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만·이태리의 出願·登録件數가 엄청나게 많다. 즉, 1988年 特許出願을 보면 한국 304件, 대만 1,456件, 이태리 2,187件으로 대만·이태리가 우리나라의 약 5배, 7배이며, 商標出願을 보며 한국 131件, 대만 265

4. 美國의 年度別 特許·商標登録件數

區分 年度	發明	意匠	植物	再出願	特許小計	商標小計	總件數
1984	66,753	4,935	174	287	72,149	51,175	123,324
1985	69,667	5,058	217	300	75,302	68,326	122,876
1986	71,301	5,202	227	263	76,993	54,550	131,543
1987	82,141	6,158	240	254	88,793	51,961	140,754
1988	77,317	5,740	283	244	83,584	52,617	136,201

5. 韓國과 몇個國과의 特許出願比較

國別 年度	中國	대만	홍콩	이태리	日本	韓國	北韓	全體外國人
1984	6	116	64	828	11,355	30	1	30,087
1985	1	165	69	968	12,783	46	1	32,539
1986	6	250	102	1,077	13,644	48	3	34,606
1987	18	388	94	1,258	17,140	96	0	41,298
1988	46	506	110	1,207	16,704	115	0	39,509

6. 韓國과 몇個國과의 商標登録比較

國別 年度	中國	대만	홍콩	이태리	日本	韓國	北韓	全體外國人
1984	65	75	89	548	751	20	0	6,703
1985	47	207	133	747	1,232	55	3	9,703
1986	40	214	123	771	884	66	0	9,118
1987	47	194	113	761	831	68	0	8,664
1988	49	182	91	739	694	60	3	8,249

건, 이태리 1,350件으로 대만·이태리가 2배, 10배로 比較가 안된다. 홍콩과 같은 적은 나라도 1984년에 特許가 우리나라 2배이었던 것이 근간에 와서 우리보다 떨어졌지만 상표는 158件으로 아직도 우리보다 많은 件數이다.

한가지 팔목할 일은 中國이 서서히 對美外交의 正常化에 힘입어 기지개를 펴가고 있는 사실이다. 特許出願의 例를 들면 1984년에 21件이던것이 1988년에 127件으로 4年만에 600%가 증가되었다(表 2참조). 아마도 中國이 우리나라와 對美輸出에 초경쟁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美國과의 外交關係가 없다고

는 하지만 特許·商標가 미소한 숫자로 1988년에 13件, 1件이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비록 1988년을 맞이하여 300件의 特許出願 돌파는 하였지만 이웃 日本이나 대만, 이태리에 比하여 너무나 미소한 숫자의 特許 및 商標出願·登錄임으로 우리 輸出商品의 국제경쟁력 배양의 目的으로라도 우선 多數件의 출원·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日本하면 特許王國으로 美國에서만도 全美國內外出願의 20%를, 그리고 全外國人出願의 50%를 點하는 첨단기술의 先頭走者임을 부인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이 日本에서 第1出願件數가 많은 Hitachi Co.는 1966年度부터 特許室 사람을 1人씩 차례로 美國特許法律事務所에 파견연수시켜 이제는 約 30名의 美國通 Patent man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日本의 Sharp Co.의 特許室 代理 한 사람은 우리 BSKB사무소에 3년간 상근하며 배운다. 우리나라의 金星 Co.가 國內에선 처음으로 6個國 長期실습생 한 사람을 우리 BSKB에 파견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워싱턴 BSKB 特許法律事務所에서)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集大成版 신간 案內

1948年 政府樹立時부터 1987年末 까지의 工業所有權關係 大法院 判例를 各權利別 上告番號順으로 整理하여 加除式으로 엮었음

I. 構成

各 權利別 4卷과 別冊 附錄으로 構成되어 있음

- 1. 特許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2. 實用新案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3. 意匠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拒絕不服, 其他
- 4. 商標 I : 無效, 權利範圍確認, 取消, 拒絕不服, 其他
- 5. 附錄 I : 總索引, 抗告番號順 對照表, 審判番號順 對照表, 條文別 主要判例要旨

II. 體制 : 4.6倍版(公報크기, 가제식)

III. 紙質 : 內紙 (미색모조

80g), 表紙(포크로스)

IV. 收錄件數 : 1,600餘件(1948~1987)

V. 內容 : 全文掲載

VI. 總面數 : 3,200餘面

VII. 販賣價格

— 會員 : 90,000원

— 非會員 : 110,000원

※ 其他 : 詳細한 內容은 調査資料部(555-6892)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本會 新刊

職務發明補償制度考察

국판 200면 · 가격 3,000원